



“다시 일상으로”... 제주공항 귀경 인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에는 추석을 고향에서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희만기자

3년 만의 만남 후 다시 일상으로

나홀간의 짧은 연휴 끝... 21만명 넘게 제주 찾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즐겨
관광지엔 나들이·관광객 북적... 민속놀이 체험도

“다들 건강하고, 다음 명절에 또 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은 연휴를 즐긴 뒤 제주를 떠나려는 귀경객과 관광객으로 오전부터 북적였다. 공항에는 집에서 챙겨준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출발장으로 향하는 귀경객들, 그리고 이들을 배웅하는 가족들로 가득했다. 오랜만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서로 겨안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나눴다.

이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배웅하러 나온 서모(72·서귀포시)씨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같이 명절을 보내게 됐다. 그래서인지 더 애뜻하고 떠나보내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았다”며 “정말 오랜만

에 다같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모두 일일이 안아주며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2년 만에 고향 제주를 찾았다가 다시 귀경길에 오른 이모(42)씨는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부모님이 올해 추석에도 내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보고 싶어 왔는데 잘한 것 같다”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과 친구들도 만나고 모처럼 고향의 정을 듬뿍 느끼고 간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22만명이 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4만 7431명이 제주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9일 5만1907명, 10일 4만2861명, 11일 3만9043명 등 나흘간 18만

1242명이 항공편과 선박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12일 3만9000여명가량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추석 전후 닷새간 하루 평균 4만4400여명이 제주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관광을 즐겼다.

추석 연휴 기간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등 도내 관광지에는 관광객과 나들이객의 발길이 잇따랐으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목관아, 제주민속촌 등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찾아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또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인 만큼 예전처럼 가족과 친척들이 한데 모여 추석 차례를 지내는 곳이 많았지만 거리두기를 적용했을 때처럼 간소하게 추석 차례를 지낸 곳도 적지 않은 등 집집마다 추석 차례 모습은 제각각이었다.

제주 코로나19 신규 287
잠정집계 12일 <1시 기준> 누적 32만8613

오염지표수 숨골 유입 도내 최초 확인

동일리 저류지 하천 숨골 유입 지표수 분석 결과
질산성질소와 세균·분원성대장균군 등 오염 심각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위쪽에 위치한 하천내 ‘숨골’로 유입되고 있는 지표수가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군 등에 오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빗물 등의 지표수를 빠른 속도로 지하로 이동시키는 공간인 ‘숨골’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매우 취약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라일보 숨골탐사특별취재팀은 지난 8월 8일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위쪽에 위치한 하천내 숨골 유입 지표수와 숨골 상류에 있는 신평 2호 우수저류지 시료(물)를 채수해 제주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했다. 또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아래쪽에 위치한

서림수원지 용천수에 대한 수질 분석도 진행했다. >>관련 기사 7면 수질 분석결과 동일리 저류지 숨골 유입 지표수에서는 먹는물 기준치(먹는물 기준 10mg/L)를 초과하는 질산성 질소와 항온동물의 분변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대장균군과 인체와 동물로부터 직접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 숨골 유입 지표수가 땅속을 암절리층을 따라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수층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불투수층에 막혀 지표면으로 용출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신평2호 우수저류지에서는 농업용수 기준치(30mg/L)를 초과하는

황산이온이 검출됐다. 이는 강우시 저류지 상류와 주변 농경지에서 축산분뇨와 비료 등의 혼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2년 폐쇄한 대정읍 주민들의 식수원이었던 서림수원지 용천수에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마을 어르신들이 이 용천수를 이용해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 한 지하수 전문가는 “오래전부터 대정읍과 한경면 등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 관정에서 동부·북부 지역보다 높은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면서 “이런 결과는 숨골이 오염된 지표수를 지하로 유입시키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리 숨골 지표수가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

제17회 제주포럼 14~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제주포럼이 ‘갈등을 넘어 평화로 : 공존과 협력’을 주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4일 제주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세션은 제주도 서울본부와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이 함께 준비한 ‘삶의 영역에서 시도되는 한반도평화와 공존-두만강 국제연합도시 건설에 시를 통해’이다.

첫 순서는 이상현 명지대 교수가 평화를 불러오는 경제기로서서의 다국적 도시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에 주는 평화에 대한 기초발제를

한다. 두 번째 순서로는 다국적 도시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도시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 전 통일연구원장인 임강택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된 남북 경험 방안을 남북관계 전문가의 시선에서 함께 토론하고 교류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다양한 세션이 펼쳐진다. 노벨평화상 수상기관과 해외저명 평화포럼 및 평화연구소의 현직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 공적 수어통역의 과제와 역할’ 주제의 세션도 운영된다. 도는 이번 세션을 통해 글로벌 인류의 정보 격차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세션에서는 제주포럼 최초로 동시 수어·음성통역을 제공해 농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지원한다.

같은 날 제주의 환경보전과 보존을 고려한 미래까지 디자인의 지향성’ 세션도 열린다. 이 산업디자인 세션은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인 타일러 라쉬가 진행을 맡고,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와 오픈강연을 시작으로 ‘적층제조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용되는 창의적 방법’, ‘제주의 환경보존·보전을 고려한 산업디자인의 방향성’ 등을 다룬다. 강희만기자 dhkang@ihalla.com

2022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해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이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스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상

※ 낙하물방지망(플라이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보조지원 대상설비 예시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플라이넷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건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체(해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건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제주지역본부 우편 및 직접방문 제출
- 문의 :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 064-797-7514

공시금액 50억원 미만 대상, 연간 3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